



숭실대학교 철학과 동문회 소식

2001 여름 (통권 제12호) 숭실대학교 철학과 동문회 ☎156-743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1번지

□ 사색을 위한 인용 □

주님의 잣대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박 완 서

성경을 처음 읽었을 때 너무 이치에 맞지가 않아서 분노마저 느꼈던 구절이 바로 하늘나라를 포도원 일꾼과 품삯에 비유한 마태오 20장 1-16절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의 하나가 되었다.

내 안에서도 풀찌가 첫째가 되었다고도 하겠으나, 그보다는 내 신앙이 신생아 수준에서 영금영금 기기 시작하는 단계로나마 성장을 한 것이라고 여기고 싶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참을 수 없는 부조리는 결코 의롭고 높은 정신, 근면한 이, 착한 사람이 잘살고 대접이나 존경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라는 점이다. 만약 이 세상이 일한 만큼 잘살고 의로울수록 존경받는 공평한 사회라면 하나님에게 호소하여 의를 구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바로 여기가 천국일 테니까. 죽은 후에라도 심판이 있고 하늘나라가 있다고 믿고 싶은 건 바로 이 세상의 불공평 때문이었다.

나는 심판의 날에 과연 떳떳할까. 그닥 자신이 없으면서도 나보다 더 나쁜 악인이 더 가혹한 심판으로 고통받는 꼴을 보기 위해서도 심판은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이 세상의 불공평에 대한 우리의 절망은 거의 체질적이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절대적인 공평을 바랄 때, 온종일 일한 일꾼이거나 반나절 일한 일꾼에게나 오후 늦게부터 일한 일꾼에게나 똑같은 임금을 주는 처사는 실망을 넘어 화가 날 지경이다.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정실 인사하고도 비슷하거니와, 게으른 자의 요행수를 두둔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런 불공평을 하늘나라에 비유하시다니, 하늘나라에 들 수 있는 조건을 엄혹하게 붙이기로 소문난 예수님께서서 어쩔 이렇게 허술한 비유를 하셨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됐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가슴에 와 닿곤 한다.

포도원 일꾼이라면 물론 말밭이나 글밭로 먹고 살 수 있는 지식인은 아니었을 테고, 요즘의

가능직하고도 달라 다만 몸 힘 하나로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막노동꾼이었을 것이다. 한 데너리온도 새벽부터 일을 나온 근면한 일꾼과 인색하지 않은 주인이 합의한 액수니까 식구들과 그날의 일용할 양식을 해결할 만한 가치는 되었을 테니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저임금으로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다.

문제는 그 임금을 온종일 뼈빠지게 일한 사람이나 나중에 나와서 조금 일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적용한 데 있다. 포도원 주인도 늦게 나온 사람을 처음부터 탐탁하게 여긴 것은 아니다. 왜 하루 종일 빈둥거렸느냐고 물었고 그들은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안 주었다고 말한다. 왜 그들은 온종일 일을 못 얻었을까. 아마 옷차림이 유난히 초라해 보였을 수도 있고 몸이 남보다 작거나 약해 보였을 수도 있으리라. 아무튼 남을 밀치고 앞으로 나서서 주인 눈에 쫄 만큼 영악하고 뽕방뽕방한 사람은 못 되었을 것은 쉽게 짐작이 간다.

그 일꾼의 비실비실하면서도 초조한 모습과 그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연민의 시선과의 만남은 슬프고도 아름답다. 예수님은 그 꼴찌 인생들에게도 똑같이 일용할 양식을 주라고 말씀하신다. 마치 자연이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똑같이 햇빛과 비바람을 내리듯이. 그것이 곧 사랑이고 사랑은 공평 이상의 가치인 것이다.

〈루가 9, 23-26〉

— 묵상집 『님이여, 그 숲을 떠나지 마오』(여백)에서

◇저서 출판을 축하합니다◇

김 선 욱 지음 / 정 치 와 진 리 / (책세상 펴냄)

이 책은 철학과에 출강하는 김선욱 박사(55회)의 첫 번째 저서이다. 제목이 말하고 있듯이 정치와 진리의 관계에 대한 책이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박한 생각은 정치는 진리가 실현되어야 하는 곳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저자가 이 책에서 시종일관 주장하는 논지는 정치는 진리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치 영역에서 진리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정치를 진리의 영역으로 볼 것인가, 의견의 영역으로 볼 것인가라는 길고 오래된 토론에서 후자 편에서 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는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 1906-1975)의 정치 사상의 한 부분을 정리하고 발전시킨 것이다.

정치가진리의 영역인가라는 핵심 주제를 다루는 이 책은 그와 관련하여 정치란 무엇인가, 권력이란 무엇인가, 시민의 정치참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등과 같은 주제를 아렌트의 사상을 중심으로 다루기도 한다. 요컨대 이 책은 정치와 진리라는 주제가 제시하는 문제의 핵심과 정치사상적 연관들을 점검한다. 이러한 시도는 결국 진리를 배제한 채 바람직한 정치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여준다. (3,900원)

□ 同門斷想 1 □

삶의 여유와 삶의 본질



김 상 학

나이 육십이면 생각하는 것이 원만하여 어떤 일을 들으면 곧 이해가 되는 이순(耳順)이다. 내 인생이 벌써 이순을 지나 고희(古稀)를 바라보고 있다.

이제 와서 나의 육십 인생을 돌이켜 보건대,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보내 왔음을 고백한다. 정말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드린다. 지나온 세월 동안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목회여정이나 총회사역뿐만 아니라 육십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것이다.

20대 불타는 청춘을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겠노라 다짐하고 신학의 길로 뛰어들었고 더 깊은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장로회신학대학 본과(제55회)를 졸업하고 곧바로 송실대 철학과 3학년에 편입(1962년)하여 철학을 공부하게 되었다. 송실대 철학과에서 보낸 2년의 기간은 내 인생과 신학의 깊이를 더 해 주었다. 특히 지금은 작교하신 고 김능근 교수님과 조요한 교수님, 안병욱 교수님, 최명관 교수님, 고범서 교수님 등 귀한 분들을 만나서 동양철학과 희랍철학, 서양철학을 배우게 되면서 이 땅 한반도에서 목회를 꿈꾸는 신학도로서 한국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철학에 깊이 심취하여 자기 객관화를 이루는 연마를 하였다.

조요한 교수님께서서는 당시 희랍철학 시간에 소크라테스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차디찬 감옥에서 제자들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이 나이에 어떻게 도망을 가겠는가?”라고 하면서 독배를 마시며 깨끗한 죽음을 선택한 것에 대하여 열강을 하시고, 고 김능근 교수님도 은퇴를 하시면서 신당동 집 뒷길에서 군고구마 장사를 하면서 삶의 여유를 즐기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다. 안병욱 교수님의 키에르케고르 강의는 큰 감명을 받았고, 최명관 교수님의 분석철학, 또한 독어원강으로 헤겔과 칸트 과목은 참으로 힘들었다. 이 귀한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지금까지 나의 인생 철학으로 삼고 있는 “삶의 여유와 삶의 본질”을 깨닫는데 큰 도움을 주었고 지금도 되새기고 있다.

송실대에서 철학을 공부하면서 나는 철학적인 사고 훈련을 받았고, 특별히 서양 철학의 중요한 개념들을 이해하게 됨으로써 철학적인 토대 위에 있는 신학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받아 후에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조직신학을 전공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쾨커디아 신학대학원과 풀러 신학대학원에서 선교신학을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지금 나는 104년의 전통과 기독교 정신과 새로운 학문 및 첨단 기술을 가지고 우리 민족과 인류 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봉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송실인의 하나가 되었다는 (5면에 계속)

□ 同門斷想 2 □

교통체증에 관한 짧은 생각



이 상 훈

얼마전, 퇴근하던 길이었다. 집은 수원이고 직장은 종로5가에 있어 주로 한남대교를 거쳐 과천을 지나는 의왕고속도로를 따라 퇴근했다. 그 길로 출퇴근하며 토요일 오후면 유난히 심해지는 교통정체로 고생했는데, 그 날도 마찬가지였다. 더군다나 그 날은 집에 있으면 손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날씨가 좋았다. 그래서 그런지 서울에 있는 차, 없는 차들이 모두 이곳으로만 몰려들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체증이 심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귀를 기울인 교통방송에서는 역시나, 어디고 다 막힌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며 교통체증을 원망하고 있는데, 그 때 갑자기 머리를 스치며 '네가 지금 교통체증이 심한 도로에 갇혀있니. 그건 네가 바로 교통체증이기 때문이야' 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내가 바로 '교통체증'이라니 어처구니없는 생각일 수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정답이란 생각이 들었다. 내가 여기 있으므로 교통체증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교통체증 가운데 갇혀 짜증을 내는 것은 결국 나 자신에게 짜증을 부리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곰곰이 생각을 연장해 나가자 우리네 시는 것이 이것과 마찬가지로라는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환경문제도 역시 그렇다. 환경문제는 결국 지나친 개발과 소비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욕구를 자제하고 살아가기에 필요한 만큼만 소비하면 될 것을 욕망을 자극하는 것에 현혹되어 지나치게 많이 먹고 마시고 즐거움으로 인해 지나치게 많이 생산되고 개발되면서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다.

정치문제도 그렇다. 우리 자신도 정치가 부패하고 부실화하는데 책임이 있다. 정치인들을 욕하는 만큼만 정치에 관심을 갖고 대안을 제시하고 참여한다면 우리네 정치문화는 몰라도 몇 차원 높아졌을 것이다.

물론 주요한 원인제공자가 따로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가끔 우리도 결코 적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것을 도외시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 아니 우리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나 자신에게는 아무런 잘못이나 고칠 점이 없다는 것이 우리가 흔히 취하는 태도다. 그러면서 남들을 욕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욕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말이다.

부처님 눈에는 부처만,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는 말이 있다. 나 자신이 개입된 일에

(3면에서 계속) 사실에 큰 자긍심을 가지고 있으며, 사랑하는 후학들이 학교의 건립 이념과 전통을 깊이 체득하여 이후에 이 민족과 세계를 위한 위대한 숭실인이 될 것임을 기대하고 확신해 본다. (36회 ·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사무총장 · 동문회 부회장)

불평하고 원망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결국 우리는 다른 돼지를 보고 더럽다고 욕하는 어리석은 돼지나 다를 것이다 없다.

나 자신이 먼저 변하지 않고는 바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물론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도 순식간에 바뀌어 지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 예컨대 사용자에게 유리한 고용 형태로 노동시장이 변하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된다는지 하는 일들이 그

렇다. 이처럼 별로 좋지 않은 일들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일어난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고 일들이 벌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답은 분명하다. 나 먼저 변하고 바뀌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저 막연히 좋은 일이 벌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막히던 길이 순식간에 뚫리기를 바라는 헛된 욕망과 같은 것이다.

한참 생각을 거듭하다보니 어느 새 집에 거의 도착해 있었다. 유난히 막힌 탓에 오후 늦게 퇴근해서 어스름해서야 집에 들어왔지만, 그 날의 교통체증은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해준 곱마운 교통체증이었다. (69회 · 한국기독교공보 기자)

지금 송실에서는...

작년 12월 21일 학교법인 송실재단 이사회가 제9대 총장으로 어윤배 박사의 연임을 결정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송실대학교는 총체적인 난국에 처해 있다. 교수협의회는 12월 26일부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으며, 어윤배 박사 연임 반대에 170여 명의 교수들이 서명하였고, 정오 침묵시위와 삭발, 단식 등의 방법으로 어윤배 박사의 즉각 퇴진 운동을 계속 전개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임시업무 수행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유보했던 파업을 4월 2일부터 재개해 5월말 현재 60일 가까이 대학행정이 마비 상태에 있다. 총학생회 역시 4월 2일부터 수주 동안 동맹휴업을 하였으며, 그런 가운데 철학과 길재선군(91학번)과 김정식군(94학번)은 4월 10일부터 인문관 앞에서 「어윤배 퇴진, 송실발전」이란 구호 아래 무기한 단식농성을 하였다. 이들은 11일 동안 단식농성을 하다 4월 20일 오후 2시경 탈수증세를 보여 강남교려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어 4일간 가료를 받은 후 4월 23일 오후 퇴원, 현재는 건강을 회복한 상태이다.

한편 어윤배 박사측에서는 교수협의회 김홍진 회장을 비롯하여 김대근 부회장, 이상원 부회장, 노동조합 고동환 지부장의 3인의 간부, 부총학생회장 등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시작당국에 고소하여 학내문제가 법적 심판을 받게 되었다.

결국 오늘 송실이 처한 파산 직전의 혼미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송실재단 이사회 뿐일 것이다. 송실대학교의 관리 감독의 최종 책임이 이사회에 있기 때문이다.

철학과 동문 여러분께서도 모교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애정어린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란다.

□ 同門을 찾아서 6 □

성결한 마음, 긍정적 사고, 성실한 생활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이 만 신 목사(35회)를 찾아서 —

· 인터뷰: 이성준(동문회 간사·대학원 석사과정), 박유리(학부 4학년/경력)

나는 날로 된 음식을 싫어한다. 조미와 열을 가하지 않은 음식이 몸에 더 유익하다지만 어쩐지 나는 과일이라도 생과일보다 통조림에 들어있는 과일이 더 맛있게 느껴진다. 인류가 식습관을 생식에서 화식으로 바꾼 그 순간부터 수많은 질병에 시달리기 시작했다는 이론이 그럴싸하다고 믿으면서도 말이다.

한데, 날로 된 것이 좋은 건 비단 음식만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닌지. 사람과 사람이 만나 인연을 맺을 때,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생김생김, 생각 하나하나를 가공하지 않은 날로 된 - raw - 그 모습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지 모른다. 내가 처한 상황과 입장, 그리고 나의 편견과 가치관에 의해 이미 그 사람은 가공되고 조미되어 왜곡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맡게 된 이번 인터뷰는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 너무나 어려운 인터뷰였다. 끝을 알 수 없는 학내 사태에 대해, 극단으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 두 입장에서, 나는 나의 스승과 나의 선배와 나의 동기들이 옳다고 믿는 쪽을 선택했고 또한 그 길만이 정녕 바른 길이라고 굳게 믿었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다. 그러나 그 문제로 인하여 이번 인터뷰가

이토록 어렵게 느껴질 줄은 몰랐었다.

✎ 이만신 목사님에 대하여

이번에 찾아간 선배님은 현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직을 맡고 계시며, 성결교회의 이름을 널리 알리신 청과 이만신 목사님이었다. 올해 연세가 73세로 1963년에 송실대를 졸업하신, 선배님이라고 부르기에 너무나 높은 대 학번 선배님이셨다. 목사님은 신학교를 졸업한 후 목회의 길을 건다가 32살에 화시편입으로 송실대 철학과에 들어오셨다. 당시 목회하는 분들 중에서 신학교 졸업 후 대학에 다시 진학하는 일은 드문 경우였는데, 목사님은 철학을 배움으로써 보다 넓고 깊은 목회의 길을 가고자 하셨다고 한다. 인터뷰 내내 목사님은 송실대 철학과에 대해 깊은 애정과 자부심을 나타내셨다.

✎ 학내 사태에 대하여

간단한 소개 인사를 나눈 후, 먼저 어윤배 박사의 연임을 둘러싼 학내 갈등상황에 대한 의견을 목사님께 조심스레 여쭙었다.

- 현재 학교 상황이 몹시 어려운데, 목사님께서 지금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깊이 알지는 못해요. 나는 장로교회가 아니라 성결교회 목

사이기 때문에... 송실대는 장로교회가 재단이거든요. 한데, 어윤배 총장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 나는 잘 모르지만, 설사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기독교 학교답게 기독교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요. 물리적으로 투쟁하고 학교의 총장을 지낸 분에게 인격적으로 모독을 가하는 등의 과격한 시위는 학교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봐요. 요즘엔 과격한 시위문화에 대한 비판도 일고 있지 않아요? 아무쪼록 기독교 학교답게 의사표현도 상호 인격을 존중하며 해야죠. 총장을 선임하는 문제는 이사회에 그 권한이 달려있으니까 이사회와 정치적으로 협상하든지... 나는 어윤배씨를 개인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몇 번 만나보았을 때 느낌은 아주 부드럽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 양반이 다니는 장로교회 소속 새문안교회에서도 장로님들 사이에 인기가 많고 좋은 분으로 평가받고 있다더군요. 아무튼 저지에 의해서 지리를 물러난다는 것 자체도 인격적인 손상일 뿐더러 문제를 대외적으로 알려서 창피를 주어 물러나게 한다는 것은 신사적이지 못해요. 학교 안에서 좋게 구성원들끼리 해결하도록 하여야지요.

목사님은 기독교적인 방식을 여러 번 강조 하셨다. 목사님의 말씀에 난처해진 나는 뭐라고 답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었다. 집회의 연단에서 삭발하는 교수님을 보며 눈물을 흘렸던 일과 단식을 하며 쓰러진 선배들, 집회와 투쟁일정에 고달픈 후배들, 동기들 생각이 스치면서 뭔가 말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면



이 만 신

서도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함께 한 성준 선배가 교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투쟁말고도 1인 시위나 이사회에 이사분들과의 협상 경위, 철학과 학우의 단식 투쟁 등에 대해 좀더 소상히 설명해 드렸지만 대화는 쉽게 합의점에 도달할 수 없었고, 바로 그 점이 마음을 몹시 괴롭게 만 들었다.

- 최근에 교내에서 한 단대 학생회가 고사를 지내다가 기독교 연합회 학생들에 의해 물리적으로 저지되었던 일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당연히 옳은 일이에요. 기독교 학교에서 고사를 지낸다는 것은 건교이념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지.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의 장사상을 뒤집어엎었다고 나와있어요. 그 기독교인 학생들의 행위는 정의로운 일이고, 학교에서 고사를 지내려던 학생들이 잘못된 거예요. 어디 (채플) 예배를 보는 학교에서 그런 짓을 하나.

-종교가 없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점도 있는 것 같은데요...

대학인 정도 됐으면 자신이 다니는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송실대는 기독교 교리를 따르는 미션스쿨인데, 그것도 모르고 학교에 지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나는 학교 자체의 특성보다 수능 점수에 맞춰서 지원하고 응시하는 많은 학생들을 떠올리며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했다. 왜냐

하면 나 역시 승살대가 기독교 학교인 것을 몰랐었고, 설사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종교적인 색채가 학교 생활에 이토록 크게 영향을 미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목사님의 말씀대로 자신이 다닐 학교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온 것 또한 잘못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조용히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 목사님의 세 가지 인생관

학내 사태에 대한 상반된 입장에서 대화가 진행되다가 이야기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이슈로 넘어가게 되었고, 그렇다면 과연 이처럼 어지러운 세상에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인생관은 무엇인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말씀 수 없었습니다.

나는 목회할 때, 세 가지 철학을 가지고 살았어요. 첫째는 성결한 마음을 갖자는 것, 영어로는 holiness라고 하지. 거기엔 중요한 의미가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죄짓지 말고 살자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남들과 구별되게 살자는 것, 즉 다른 사람들과 똑 같은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좀 다르게 사는 것, 이 두 가지가 성결의 중요한 의미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사는 것이지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에도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 자신에 대한 긍정이고, 둘째는 나의 환경, 여건에 대한 긍정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환경을 탓하는데,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긍정이 필요해요. 가난도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일 수 있고, 학벌이 못났다고 해서 출세를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카네기는 홀어머니 밑에서 가난하게 자랐지만 그가 난 덕분에 세계 최고

의 부자가 될 수 있었고, 정주영씨 같이 정규 공부는 별로 못했지만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있지 않아요? (하하) 그리고 세 번째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여기 이 아가씨는 (나를 가리키시며) 어려보이는 게 장점이야. 하하.

어, 그건 장점이 아닌데요? (ㄷ.ㄷ) (목사님은 인터뷰하는 도중 몇 번씩 내게 앓되게 생겼다는 말씀을 하시며 웃으셨는데, 나 스스로는 그것이 장점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됐지만, 긴장되었던 분위기가 부드럽게 풀리는 듯 싶어 기분을 좀 밝게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세 번째 철학은 바로 성실한 생활을 하자는 것이지. 기도 하나를 해주어도, 주례를 한번 서게 되어도 성심 성의껏 하려고 노력해왔지. 아무리 최선을 다해 산다고 해도 뒤돌아서면 후회가 남는 게 인생이니 말이야.. 나의 인생 철학은 바로 이 세 가지라 할 수 있어.

✱ 동문회에 바라는 점,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 철학과 동문회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신지?

안병욱 교수님이 마지막 강의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학이란 뭐냐, 바로 좋은 스승과 좋은 교우와 좋은 책을 만나는 곳이다, 라고 말야. 그 말씀처럼 동문이란 것도 같은 학교, 같은 학과에서 인연을 맺었으니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한 관계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동문들이 사회에 나가서 잘되고 학교가 발전하고 그러면 좋겠죠.

- 이제 인터뷰를 마쳐야 할 것 같은데, 앞으로 하실 활동이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음... 나는 선교회나 장학회 같은 걸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지역사회에도 좀 이바지를 하고 싶고,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말이지요.

- 사적인 질문인데요, 결혼은 언제 하셨나요? (웃음)

신학교 졸업하고 했지. 내가 학교에 좀 늦게 들어갔어. 신학교 졸업할 때가 스물 일곱이었으니, 아내도 그때 스물 일곱이었는데 나보다 생일이 두 달 빨랐으니 연상의 여인이었지. (모두 웃음)

- 자녀분은 어떻게 되나요?

아들 둘에 딸 둘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죽었어. 지금은 아들 하나 딸 둘 뿐이야.

목사님은 갑자기 낡은 가족지갑을 꺼내시며 사진을 보여 주셨다. 가족 사진이었다. 큰아드님이 먼저 세상을 졌다는 말에 차마 더 여쭙지는 못했지만 손자 손녀와 모두 같이 찍은 오래된 가족 사진을 보고 괜히 마음이 슬퍼졌다.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니 거실 한 쪽엔 가족사진이 여러 개 자리잡고 있었다. 탁자 위에 놓인 활짝 웃고 있는 젊은 남자의 사진은 누구의 것이었을까...

-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뷰는 이것으로 끝났다. 지면에 다 펼치지 못한 많은 대화가 있었음을 밝힌다.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특정한 입장을 취하여, 인터뷰에 응해 준 분의 이야기를 말한 그대로

의 날 것이 아닌 어떤 의도에 의해 편집해버리거나 왜곡시키는 것이 옳지 못함을 알기에 몹시 괴로웠다. 송실대 철학과에 몸담고 있는 한 명으로서 졸업하신 많은 선배들과 한마음 한 뜻으로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랐기에 괴로웠고, 어떻게 인터뷰 내용을 정리해야 할지 막막했다.

인터뷰를 마친 후 목사님께서서는 회고록 한 권과 목사님을 대상으로 연구한 책 한 권을 한 권 한 권 정성껏 시인을 해 주셨는데, 무신론자인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기를 바라시며 기도도 주셨다. --;; 초등학교 이후로 한 십년 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을 해본 것 같다. 비록 생각과 가치관은 달랐지만 목사님의 여러 가지 따뜻한 배려에 감사하고 싶다. (그러나 어윤배 박사가 퇴진하는 그 날까지 송실 구성원 모두가 투쟁하여야 함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한편으론, 혹 시라도 서투르고 미숙한 이 글에 마음 다칠 분들이 계시지 않을지 염려하며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알림

철학과 동문회는 동문 여러분의 회비로 꾸려집니다. 동문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연회비: 회장단(15만원), 임원(10만원), 일반회원(5만원)

- 은행구좌:
한빛은행 461-146308-02-001
우체국 012948-0048513
(예금주) 송철동문(김기순)

동 문 회

I. 동문 동정

▶ **진우섭** 동문 (49회) 3월에 (주)제이씨인포테크 금융사업부 영업부장에 취임하였다.

▶ **심혜련** 동문 (대학원) 독일 베를린 훔볼트대학교에서 작년 12월 "Überlegungen zur medientheoretischen Konzeption bei Walter Benjamin"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통과됨으로써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청주대 등에 출강 중이다.

▶ **문영식** 동문 (대학원·전도사) 5월 26일 초대 교회에서 김지연양과 화촉을 밝혔다.

▶ **조영민** 동문 (71회·육군장교 복무) 3월 1일 육국회관에서 한영미 (모교 사회사업학과 졸업) 양과 화촉을 밝혔다.

▶ **이주형** 동문 (72회) 5월 12일 청량리 동도교회에서 강병희 (모교 사학과 졸업) 양과 화촉을 밝혔다.

철 학 과

I. 교수 동정

▶ 최근 학내 문제와 관련, 철학과 교수들은 아래와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우리의 결의

우리 철학과 교수들은 지금의 학내 사태가 개교 104년을 맞이하여 새 세기를 힘써 준비해야 할 숭실대학교에 심각한 장애와 위기를 가져오고 있음에 인식과 우려를 함께 하면서, 아래와 같이 우리의 결의를 천명한다.

1. 어윤배 씨는 즉각 퇴진해야 한다.

1. 재단이사회는 어윤배 씨에 대한 무리한 연임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1. 어윤배 씨에 의해 파행적으로 선임된 모든 보직 교수들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1. 현 사태를 정상화하기 위한 교수협의회의 활동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

2001년 4월 6일

숭실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교수
박신환, 김기순, 백도형, 한석환

II. 학부 및 대학원 소식

▶ 3월 새학기에 2000년에 입학한 「역사·철학과군」 학생들 중에서 28명이 철학과 2학년으로 배정되어 현재 철학과 재학생 수는 90여명이 된다. 또한 올해에도 1학년 신입생을 「역사·철학과군」으로 모집하여 70명이 입학하였으며, 이들은 내년 3월 철학과와 사학과 중에서 전공을 배정받게 된다.

▶ 철학과에서는 3월 30·31일 이틀동안 유명산 휴양림으로 전체 MT를 다녀왔다. 교수, 대학원생, 「역사·철학과군」 1학년 신입생을 포함하여 60여명이 참여하여 돈독한 정을 나누었던 뜻깊은 자리였다.

▶ 대학원 철학과 학생회는 2001년 3월 12일 정기총회를 열고 회장과 총무에 각각 김시천씨 (66회·박사과정 5학기)와 윤동성씨 (72회·석사과정 3학기)를 선출하였다. 그리고 2001학년도 제1학기 석사과정에 특차로 1명이 진학함으로써 (길재선), 현재 철학과 석·박사과정에 재학중인 학생은 모두 21명이다.

▶ 대학원 철학과 학생회 (회장: 김시천)에서는 3월 12일과 4월 30일에 각각 월례 발표회를 가졌다. 3월에는 김범수씨 (박사과정; 철학과 조교)가 "들뢰즈-베르크손의 차이존재론"을, 윤

동성씨(석사과정)가 “피터 싱어의 동물해방론에 대한 공리주의적 해석”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해 김광현씨(박사과정 수료; 대림대, 안양과학대 감사)와 배기훈씨(석사과정; 문예창작학과 조교)가 각각 논평을 하였다. 4월에는 백두환씨(석사과정; 기독교사회연구소 조교)가 “정신 인과론 — 김재권 교수의 논의를 중심으로”를, 배기훈씨가 “아리스토텔레스의 aitia에 관하여”를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성준씨(석사과정; 동문회 간사)와 김윤희씨(석사과정)가 각각 논평을 하였다.

▶**대학원 철학과**에서는 5월 21일 춘계 콜로키움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심혜련 박사(대학원·청주대 감사)는 “대중매체에 관한 발터 벤야민의 미학적 고찰이 지니는 현대적 의의”를, 신응철 박사(64회·송실대, 경기대 감사)는 “해석학과 문예비평 — 가다머와 아우스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발표하였다.

▶**대학원 철학과 학생회**는 학내 문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현재 송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

현재 학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혼란의 근원은 어윤배 교수에게 있음을 밝힌다.

학부생들에 의해 전개된 동맹휴업, 교직원 노조의 파업, 교수협회의 침묵 시위·기도회, 그리고 지난 4월 11일에 발생한 환경직 기념관에서 공청회 요구를 포함한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송실의 처부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하는 것은 철학과 4학년 길재선, 김정식 동학의 단식 투쟁이다. 학내에 수업권, 교육권을 외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들은 자신의 생명권을 담보로 투쟁하고 있

다. 우리가 가진 것 중 가장 중요한 생명을 내어놓으며 외로운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선배의 위치에서 후배들의 단식을 바라보며 해결책은 오로지 어윤배 교수의 퇴진 뿐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조속히 현재의 문제점들이 해결되어 모든 송실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이름 값을 제대로 하게 되길 바란다. 이에 우리는 공동투쟁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모든 활동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며, 어윤배 교수와 보직 교수 전원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한다.

2001. 4. 16.

송실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학생회

송실철학강좌

▶**철학과는 동문회의 후원 아래 제8회 송실철학강좌**를 3월 29일 모교 과학관 103호에서 열었다. 강사는 연세대 김충열 명예교수였으며, 주제는 「새로운 세기, 동양사상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였다.

주소 업데이트

▶**위정식 동문**(48회·반포성결교회 담임목사) 서울 서초구 반포본동 1050번지 반포아파트 J동 307호 (전화) 533-8547/ 011-354-5821

▶**진우섭 동문**(49회·(주) 제이씨인포테크 금융사업부 영업부장) 경기 고양시 일산구 주엽2동 문촌마을 우성아파트 112동 1903호 (전화) 031-913-3451/ 011-9070-3451 [직장] 826-2890~1

▶**오정선 동문**(51회·신학박사, 목사) 425 Meshanticut Valley Pky A. P. T. #201 Cranston, RI, 02920, USA

▶**심해련** 동문(대학원·청주대 강사) 서울 서초구 방배3동 541-167 (전화) 3473-0813/ 016-726-5042

▶**김지현** 동문(63회·송실대 교목실 직원) 서울 동작구 상도4동 244-96번지 201호 (전화) 823-8769/ 018-231-2002

▶**위건량** 동문(64회·창신교회 부목사) 서울 동작구 사당4동 303-23호 (전화) 3486-4051 (교회) 587-1611

▶**유상진** 동문(67회·마포교회 전도사) 서울 강서구 내발산2동 주공아파트 2동 205호 (전화) 3664-3648/ 011-9088-2986

▶**권일훈** 동문(67회·신천교회 전도사) 경기 광명시 하안1동 주공아파트 124동 204호 (전화) 897-1545/ 011-496-1545

▶**이상훈** 동문(69회·한국기독교보 기자) 경기 화성군 봉담읍 동화리 100-1 신일우남클래식타운 101-303 (전화) 019-291-6312 [직장]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56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210호 한국기독교공보사 (전화) 708-4713

▶**배기훈** 동문(69회·문예창작학과 조교) 서울 용산구 산천동 삼성리버힐아파트 102동 401호 (전화) 706-9903/ 019-532-9903

▶**정창환** 동문(71회·코스맥스 해외영업팀 계장) 서울 서초구 서초2동 1361-9 서광빌딩 301호 (주) 코스맥스 (전화) 585-3511~5

▶**김경민** 동문(71회·5guys.co.kr 매니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88-8 별타워 오피스텔 1101호 (전화) 521-5971/ 016-788-2673

▶**박승범** 동문(대학원) 인천 부평구 부평2동 768-323 선인빌라 C동 103호 (전화) 032-505-6141

▶**정재식** 동문(대학원·석사과정) 전남 순천시 조례동 시대아파트 104동 1103호 (전화) 061-724-1101/ 016-621-6298

기 타

I. 참조에 감사합니다.

이승하 회장님(해방교회 담임목사)과 박근용 증경회장님(송실재단 이사), 나성 교수님(한신대 철학과)께서 제8회 **송실철학강좌**를 위해 참조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II. 바로잡습니다.

▶금년에 새로 발간한 『**동문 주소록**』(10면)에 장덕수 동문(30회·동문회 이사)의 졸업회수가 33회로 되어 있는데, 이는 오шиб이므로 **30회**로 바로잡습니다.

계간 송실대학교 철학과 동문회 소식

2001 여름 (통권 제12호)

2001년 6월 1일 발행

발행인: 이승하

편집인: 한석환

간사: 이성준

☎156-743 · 서울 동작구 상도동 1번지

tel: 820-0370/ fax: 824-4382

e-mail:

philosophy@saint.soongsil.ac.kr